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8호 현대불교  
2008년 9월 24일(음력 8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물맛을 알려면 내가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다!

### 마음공부의 관점에서 추석의 의미

**질문:** 한 달 전에 칠석과 백중을 지냈는데도 또 추석날 선원에서 조상님 천도재로 해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 하나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재사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추석은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신라 유리왕 때 공녀들을 두 패로 나누어 배 찢기 시합을 시킨 것이 기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더군다나 살기도 어려운데 이 마음공부의 관점에서 추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마음공부 하는 도리네요. 한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을 벗고 이 옷 속에 있는 그 곤충의 세계까지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보기 흉하고 그런 곤충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헤어지지 못해야 합니까?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비천상 보셨죠?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저 이것도 이 모습으로도 됐다 저 모습으로도 됐다, 이것을 건지려면 이 모습으로도 되고 저거를 건지려면 저 모습으로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간 과거고 또 앞으로 올 미래고 현재에 살아가는 이 현실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과거 미래 현재 이렇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체에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항상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름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니 미래니 현실이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질서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또 이러니저러니 말을 해 놓고...

그래서 '불교' 하면 그냥그냥 발기발기 뜯어서 그냥 짝 늘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고 그 말씀을 또 덧붙여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러 봤습니까,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곤충들도 자기 모습이니까 모든 것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풀이 아니라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풀이 아니에요. 나는 귀신이 나온다 이렇다면 그 참, 보이지 않는 데 어떠한 귀신이다 어떠한 신장이다 어떠한 뭐다 하더라도 겁 안 나는 게 뭐냐 하면 산 사람도 산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이고요. 그런데 산 귀신이 더 하지 그 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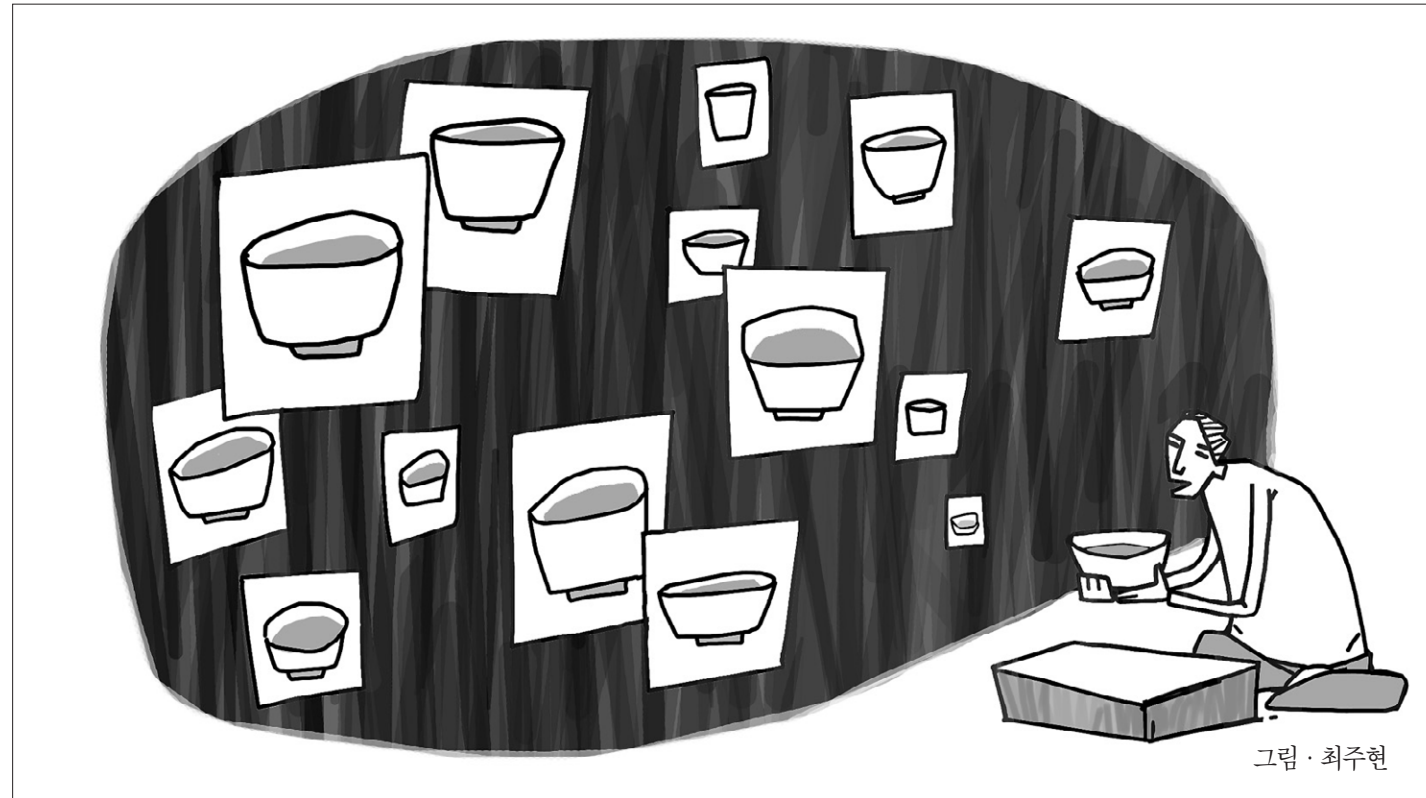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귀신이 더 하겠습니까? 그럼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이나 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귀신끼리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라 이런 거예요.

공에다가 그냥 모두 집어넣으면, 공을 집어넣으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공에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썽. 사람들이 그냥 끊어 부스림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풀이 아니네.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뭐가, 모두가 풀이 아니네 이 컵과 컵이 풀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뜨렸습니까? 마주쳐야 깨뜨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조상의 어떠한 문제들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배척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끌어안는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총에 맞아 죽은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 죽은 분도 계시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옛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오히려 무섭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을

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어떤 하루밖에 더 없지만 추석이다 하면 뭐든 하루를, 하루를 봐서 모든 지·수·화·풍과 일체 중생을 만물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지요.

일차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치는 일체 조상님들 애긴데, 법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모든 조상님들, 일체제불에게 또는 일체 중생들에게, 일체 권속들에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회향을 할 때, 마음의 회향을 할 때 한데 합쳐서 회향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한 거 하고, 아무 생각 안 해 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해도 생각이 한 게 되고, 한 것이 바로 한 사이가 없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생각도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생각을 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지고 창조력이 길러지고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은 상당히 의의가 깊은 날이다 그런 거지요.

그래, 추석을 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추석을 쇠었나? 추석은 추석이니만큼, 물론 하루도 삼

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어떤 하루밖에 더 없지만 추석이다 하면 뭐든 하루를, 하루를 봐서 모든 지·수·화·풍과 일체 중생을 만물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지요.

일차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치는 일체 조상님들 애긴데, 법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모든 조상님들, 일체제불에게 또는 일체 중생들에게, 일체 권속들에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회향을 할 때, 마음의 회향을 할 때 한데 합쳐서 회향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한 거 하고, 아무 생각 안 해 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해도 생각이 한 게 되고, 한 것이 바로 한 사이가 없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생각도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생각을 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지고 창조력이 길러지고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은 상당히 의의가 깊은 날이다 그런 거지요.

###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계란

**질문:** 한 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계(境界)를 인식하는 주체가 남아 있는 한 인식된 모든 것은 속임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지란 어떤 경지일

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때는 주인공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헤아려 보니까 이에 대해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항상 제가 얘기했죠. 물맛을 알려면 내가 직접 먹어 봐야 안다고요. 정말 뜨거운 미지근한 건지, 따뜻한 건지 찬 건지 그거는 먹어 보는 사람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 보지 않는 이상에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른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모두 봐도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해 나가면 모두 거짓말이 되고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딱 마셔 보고 그 물을 그냥 "야, 이걸 먹으니까 시원하더라." 하고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약사가 감로수를 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걸 먹어 보지도 않고 저 물맛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어디고 누구든지 나 야남이 없고 이럴 때는 물도 바로 내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을 줘도 그때는 아주 독특한 맛이 나고 그걸 감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으려면요, 나부터 먼저 알아야 지혜가 자꾸 늘어가요, 나부터 알아야.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트여야 남도 이끌어 갈 수 있지,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가 귀를 뜨지 않고 남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남에게 진짜로 보시하라 하는 거, (금)한 덩어릴 주고서 늘려라 그랬던 그걸 늘리지 않고 그 금이 없어질까 봐 늘리지 않았다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다 놓고 체험하고 하면서 남들한테 그 마음공부를 전달해 주게 되면요, 그만큼 공덕이 큰 겁니다. 이런 세계생애에 공덕입니다. 울 바로만 관법을 일러 준다. 한 사람을 이끌었는데 수십억의 중생들을 이끈 셈입니다. 그건 왜냐 하면, 집합소 하나를 포교했는데 집합소 안에 들어 있는 중생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 집합소 안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전부 바뀌어서, 화(化)해서 보살로 화했으니 얼마나 그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지금 댈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주먹을 번쩍 들거나 내리치거나 이런 등등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26면으로 계속

##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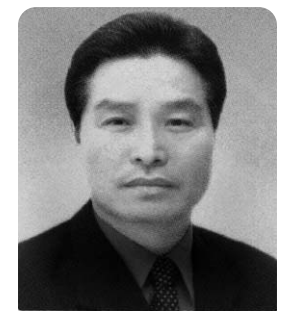
- 자 격**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불교 각단예불 및 천도제의식
  -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 수강일**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비물** 필기도구, 녹음기
- 수강료** 월 10만원
- 교육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선스님
- 문의전화** 055) 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 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등석: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 산 수입 물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의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 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민국(06-122호)
  - 현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로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 훈련장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물론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추진위원회 위원장
-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